

요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1월 General Motors(GM)와 자회사 OnStar의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 및 판매 관행에 대해 명시적 동의 없는 위치정보 및 주행데이터 수집·제3자 제공 문제를 반영한 최종 명령을 확정함. 해당 명령은 위치정보 및 운전행태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중심으로 설계됨.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 데이터 처리에 대해 통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됨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2026년 1월 General Motors(이하 'GM')와 자회사 OnStar¹⁾의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 및 판매 관행에 대한 최종 명령을 확정함²⁾
 - FTC는 약 1년간의 조사를 통해 GM과 OnStar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 및 명시적 동의 없이 위치정보와 주행 데이터를 수집·활용한 행위를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고 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명령을 승인함
 - 특히 수백만 대 차량에서 생성된 정밀 위치정보와 주행행태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집·이용·판매되었다고 지적함
 - OnStar의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서비스³⁾는 안전운전을 돕는 무료 기능처럼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세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판매되는 구조였음
 - 이번 사안은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 방식이 소비자 동의와 정보 고지 측면에서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구체적으로 OnStar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유도했고, 해당 기능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FTC 최종 명령은 위치정보 및 운전행태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중심으로 설계됨⁴⁾
 - GM과 OnStar는 향후 5년간 소비자의 위치정보와 운전행태 데이터를 소비자신용평가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ies; CRA)⁵⁾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이는 보험회사 등 외부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 인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됨

1) General Motors(GM)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데이터 활용 전략을 총괄하는 모회사이며, OnStar는 GM이 운영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으로 차량 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 및 주행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2) FTC(2026. 1. 14.), "FTC Finalizes Order Settling Allegations that GM and OnStar Collected and Sold Geolocation Data Without Consumers' Informed Consent"

3) 차량 내 센서 및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위치정보와 급제동, 급가속, 과속 여부, 운행 시간대 등 세부 주행행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수집·기록하는 구조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방식임

4) The register(2026. 1. 15.), "US regulator tells GM to hit the brakes on customer tracking"

5) 개인의 신용정보 및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신용평가, 보험 인수 심사, 고용 심사 등에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

- 이번 조치로 기업이 위치정보 및 주행데이터를 수집·이용·공유할 경우,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화됨
 - 이 조치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 자체를 일정 기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전체 명령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GM의 향후 커넥티드카 데이터 거버넌스 전반을 장기간 감독하는 성격을 가짐

○ 더불어 FTC 최종 명령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 데이터 처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장 조항도 포함됨⁶⁾

- GM과 OnStar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이와 함께 소비자가 위치정보 수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수집 중단 요청, 데이터 삭제 요청 등 소비자의 실질적 데이터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임
 - 특히 최종 명령은 단순히 사후 삭제만이 아니라, 사전 동의·사후 열람·삭제 청구·수집 비활성화·Opt-out⁷⁾을 하나의 권리 묶음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데이터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이번 사안은 커넥티드카 데이터가 보험 및 금융 분야와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문제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⁸⁾

- 수집된 데이터는 LexisNexis, Verisk 등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보험회사 등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로 지적되었으며, 법적 권한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었음
 - FTC는 이러한 데이터 제공이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보험 인수 여부 및 조건(가입 승인·보장 범위·할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판단함
 - GM은 이후 Smart Driver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종료하고, LexisNexis 및 Verisk와의 관련 제휴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사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이슈로, 향후 커넥티드카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가능성을 시사함

6) FTC(2026. 1. 16.), "FTC Takes Action Against General Motors for Sharing Drivers' Precise Location and Driving Behavior Data Without Consent"

7) 서비스 이용자가 별도의 신청이나 설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용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 방식임

8) LEXOLOGY(2026. 1. 28.) "FTC Finalizes Order Against GM Over Secret Driver Data Sales"